

코나아이 (052400)



스몰캡

박진영
02 3770 5658

jinhoeng.park@yuantakorea.com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주가	N/A
현재주가 (9/4)	19,200원
상승여력	

시가총액	2,987억원
총발행주식수	15,559,118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57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368,388주
52주 고	19,200원
52주 저	9,510원
외인지분율	8.64%
주요주주	조정일 외 5 인 30.02%

주가수익률(%)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42.8	48.3	73.0
상대	36.1	57.3	36.1
절대(달러환산)	45.0	43.1	76.5

변화하는 금융산업의 트렌드세터

코나아이 주변 환경점검: 선불카드사(코나카드)에 우호적 환경 조성

코나아이는 본업인 IC칩 기반의 카드 제조업에서 신사업인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 신규사업인 코나카드(선불카드)는 우호적인 환경과 자체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우호적 주변 환경은, 1) 감독당국의 태도: 신용카드사에 불리한 정책→선불카드사에 기회요인, 2) 가맹점의 입장: 가맹점수수료 낮은 결제수단 선호→선불카드 낮은 비용 부각, 3) 소비자에 대한 혜택: 원가 경쟁력 바탕으로 지속적인 혜택 부여로 요약된다. 경쟁 강도의 강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코나카드 확장성: B2C 기반으로 B2B, B2G 고객기반 급증 예상

코나카드는 선불카드 결제 플랫폼과 B2C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B2B와 B2G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먼저 B2B 부문에서, 업체들은 직접적인 플랫폼 개발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코나카드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다. 최근 코나카드는 SKT와 제휴한 '0(Young) 카드'를 출시했으며, 향후 프랜차이즈/도소매 유통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전망이다.

B2G 부문도 매력적이다. 최근 코나카드는 인천시의 지류 지역상품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천카드를 린칭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 결제수단으로 인천시가 직접 제휴할인 가맹점을 확보했다. 향후 다양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제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 시나리오: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이익체력 급증

코나아이의 2018년 예상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지배회사지분 기준)은 각각 1,352억(YoY +32.4%)원과 122억원(흑자전환)이다. 1) 본업에서의 터어라운드, 2) 신규사업에서의 코나카드 발급 증가에 따른 드라마틱한 이익 증대(주요 가정: 1) 연평균가입자수 60만장, 2) 월평균 결제금액 30만원)가 예상된다.

코나아이의 이익체력은 가입자수가 늘어나면서 급증(연평균가입자수 100만명: 수수료수익 360억원, 200만명: 수수료수익 720억원)한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충전 금액도 확대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충전 금액의 30%는 Deposit, 70%는 선수금으로 운용가능자산 분류)도 동반 개선된다.

사례분석: 삼성카드와 키움증권의 사례를 통해 본 코나아이

코나아이는 현재 개화시장(선불카드)을 선점하고 있는 시장의 선도 주자이다. 삼성카드의 시가총액(4.2조원)대비 회원수(약 1,061만명), 키움증권의 가입자수 급증 시기(2007년, QoQ 12~17%)에서의 PBR(3.6~6.1배)과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결산 (12월)	2015	2016	2017	(억원, %, 배)
매출액	2,167.2	1,179.0	1,021.4	1,352.0
영업이익	361.3	-58.4	-97.5	13.5
지배주주순이익	288.4	-12.2	-368.7	121.6
영업이익률	16.7	-5.0	-9.5	1.0
EPS	1,854	-78	-2,369	782
PER	18.5	-154.8	-5.2	24.0
PBR	2.5	1.0	1.4	1.9
ROE	14.6	-0.6	-22.5	8.2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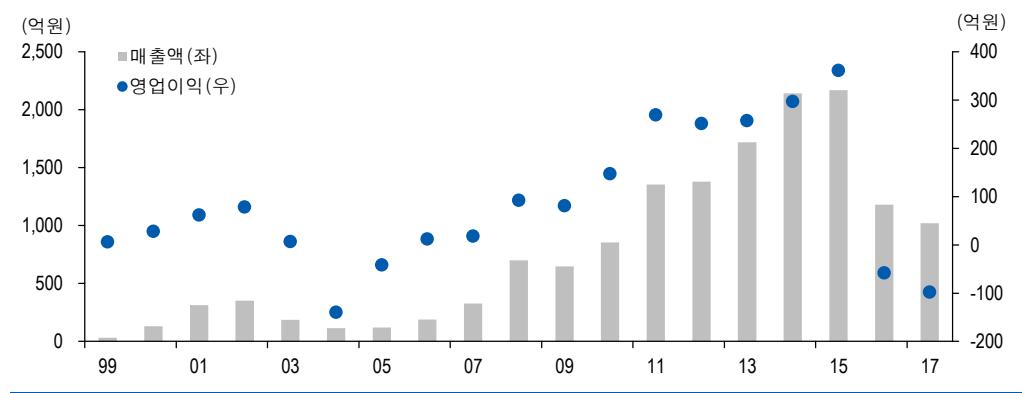
I. 코나아이, 제조업에서 금융서비스업으로 확장하는 과도기

코나아이는 글로벌 SE 시장(2015년 MS 기준)에서 금융시장 4위, 통신시장 2위, 공공 ID 시장 3위에 위치하고 있는 IT 기반의 제조업체(유심, 신용카드 등)이다. 글로벌 SE 시장 규모(2017년 기준)는 약 100억불이며, 성장률은 14~15년 평균 12.8%에서 16~17년 평균 3.3%로 낮아졌다. 코나아이 매출액은 해외 매출 둔화로 2015년 2,167억원에서 2017년 1,021억원까지 감소했다.

코나아이는 글로벌 SE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분야별 현황은, 1) 금융분야: 국제 표준 EMV 기반 IC 칩카드를 글로벌 500여 금융사에 공급, 2) 통신분야: 국내 최초 NFC USIM 카드 공급→세계 50개 통신사에 공급, 3) 공공 ID 분야: 전세계적 IC 칩 내장 공공 ID 확대 추세(공급 실적: 태국, 나미비아, 아프리카 등), 국내 공공 ID 카드 관련 대형 사업기회 발생 기대 등이다.

코나아이는 코나카드(출시당시 코나머니, 세계 최초 개방형 선불카드) 출시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은 본업에서의 텐어라운드와 신사업(코나카드)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나아이의 1999년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코나아이의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개념도



자료: 코나아이,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II. 환경점검: 선불카드사(코나카드)에 우호적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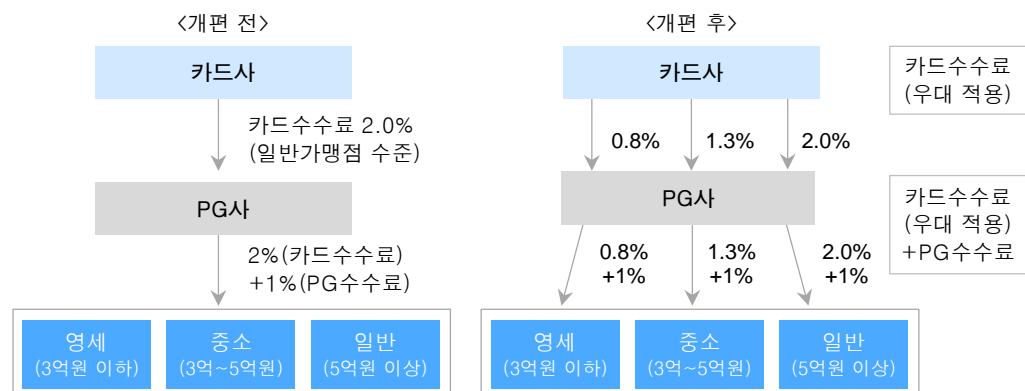
1. 감독당국의 태도: 신용카드사에 불리한 정책→선불카드사에 기회요인

소비자보호에 입각한 감독당국의 규제 방향은 신용카드사에 불리하게 흘러 가고 있다.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들에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불카드사들은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바탕으로 우호적 환경에 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5월부터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먼저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10월말을 목표로 카드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30개 중 40% 이상이 카드수수료 감면에 관련한 법률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



자료: 언론 보도,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20대 국회 계류 중인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구분	대표발의	내용
우대수수료를 인하/확대	이원욱 이학영 이학영 박주민 박준영/김상훈	영세가맹점 0.8%→0.5%, 중소가맹점 1.3%→1.0%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일정규모 이하 사회적기업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록금/기숙사비 결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PG 사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면제	박주민 소병훈 심재권/김경수	영세 상점/택시 종사자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소액경제 비중 높은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기타수수료 관련	제윤경 노희찬 서영교	대형 가맹점 제외, 전년 평균 수수료율의 110% 초과 수수료율 적용 금지 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일정 세금/부담금 제외 대학등록금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자료: 언론보도,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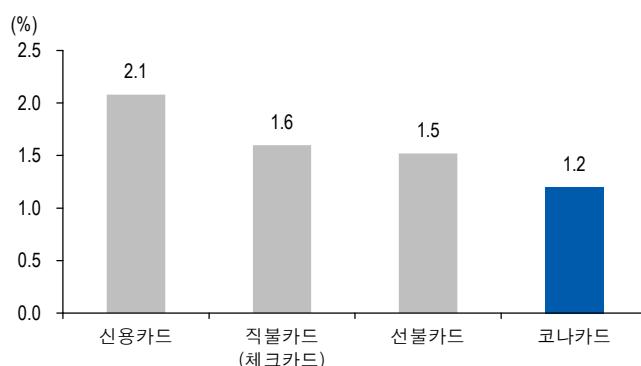
2. 가맹점의 입장: 가맹점수수료 낮은 결제수단 선호→선불카드 낮은 비용 부각

가맹점의 입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적극적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매출원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이 적은 영세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세업자의 경우, 당연하게도 신용카드보다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작은 다른 결제수단(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선호할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소비자 혜택도 동반하여 감소(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판관비 축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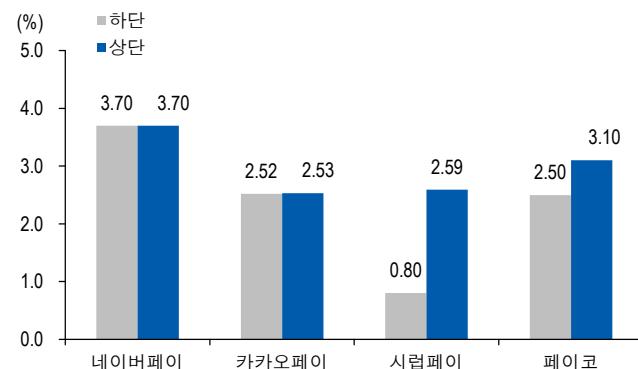
선불카드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 측면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비교해 경쟁력을 가진다. 실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각각 2.1%, 1.6%, 1.5% 수준이다. 코나카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1.2%에 불과해 가맹점주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적다.

카드 종류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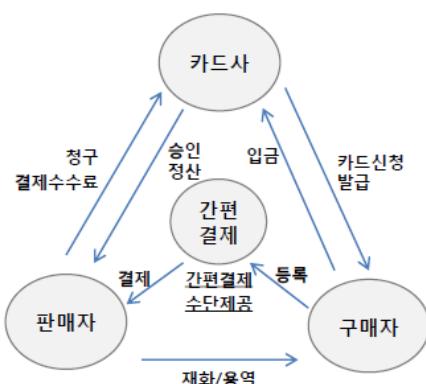
주: 연매출 5 억원 이하 영세/중고가맹점 및 국가/지자체 등 특수가맹점 제외
자료: 여신금융협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 가맹점수수료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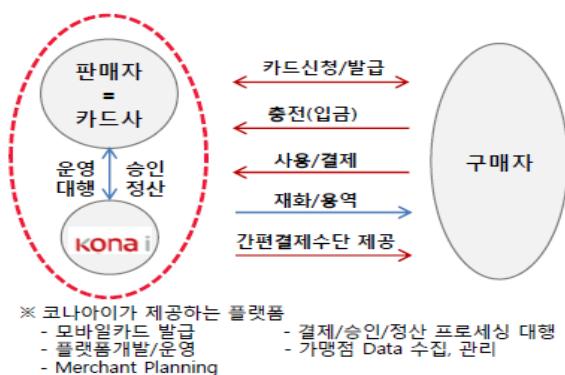
자료: 중기이코노미,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기존 간편결제시장 구조(3/4 자 구조)



자료: 코나아이,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코나카드 플랫폼(2 자 구조)



자료: 코나아이,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3. 소비자에 대한 혜택: 원가경쟁력 바탕으로 지속적인 혜택 부여

코나카드는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나카드의 원가경쟁력은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자간 결제를 통해 결제 대행업체(VAN, PG사) 관련 수수료가 절감되고, 2)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아 고정비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코나카드가 소비자들에 부여하는 주요 혜택은 커피, 편의점, 영화관, 테마파크, 외식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일차적인 타겟시장은 상대적으로 혜택에 민감한 1~30대 젊은 층으로 판단되며 향후 타겟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나카드 사업모델



자료: 코나아이,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코나카드 주요 혜택

오프라인 커피빈 모바일 결제 시 20% 할인 2018/03/05 ~ 2018/12/31	오프라인 스타벅스 30% 캐시백 2018/02/01 ~ 2019/01/31
현장할인 교보문고 10% 현장할인 2018/08/01 ~ 2018/09/30	오프라인 GS25 10% 캐시백 2018/02/01 ~ 2018/12/31
현장할인 오크밸리(수영장, 사우나) 50% 현장할인 2018/07/27 ~ 2019/07/31	오프라인 롯데시네마 30% 할인 2018/06/01 ~ 2018/11/30
현장할인 서울 이랜드 FC 30% 현장할인 2018/08/01 ~ 2018/12/31	오프라인 버거킹 10% 캐시백 2018/04/01 ~ 2018/12/31
온/오프라인 전국가맹점 0.2% 캐시백 2018/07/01 ~ 9999/12/31	오프라인 이마트24 10% 할인 2018/04/01 ~ 2018/12/31

자료: 코나아이,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III. 코나카드 확장성: B2C 기반으로 B2B, B2G 고객기반 급증 예상

코나카드는 선불카드 결제 플랫폼과 B2C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B2B 와 B2G 부문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B2B 부문에서는, 코나카드 플랫폼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다. 업체들은 직접적인 플랫폼 개발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코나카드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다. 최근 코나카드는 SKT 와 제휴한 '0(Young) 카드'를 출시했으며 의미 있는 가입자 확대가 기대된다. 향후 프랜차이즈, 도소매 유통업체 등 결제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B2G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플랫폼 제공 이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다. 최근 코나카드는 인천시의 지류 지역상품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처너카드를 런칭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 결제수단으로 인천시가 직접 제휴할인 가맹점을 확보했다. 향후 다양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제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SKT 제휴 '0 카드' 소개

[NW포토]SKT, 컬처 브랜드 '영(O)'출시…코나카드와 결합한 '0카드'



SK텔레콤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SJ 쿠스트홀에서 1020세대 컬처 브랜드 '영(O-Young)' 출시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모델들이 코나카드와 결합한 '0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자료: 코나아이,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인처너카드 소개



자료: 코나아이,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IV. 실적 시나리오: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이익체력 급증

코나아이의 2018년 예상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지배회사지분 기준) 전망치는 각각 1,352억 (YoY +32.4%)원과 122억원(흑자전환)이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14억원이다. 코나아이는, 1) 본 업에서, IC 칩 기반의 카드 제품 및 상품 매출 확대와 고부가가치 전자카드 매출확대로 턴어라운드를 달성할 전망이고, 2) 신규사업에서, 코나카드 발급 증가에 따른 금융수익 증대로 드라마틱한 이익 증대 달성할 전망이다.

코나아이 실적추이 및 수익예상						(단위: 억원, 원, %, 배)
	2014	2015	2016	2017	2018F	
매출액	2,142.1	2,167.2	1,179.0	1,021.4	1,352.0	
영업이익	297.8	361.3	-58.4	-97.5	13.5	
지배주주순이익	257.3	288.4	-12.2	-368.7	121.6	
영업이익률	13.9	16.7	-5.0	-9.5	1.0	
EPS	1,654	1,854	-78	-2,369	782	
PER	20.4	18.5	-154.8	-5.2	24.0	
PBR	2.9	2.5	1.0	1.4	1.9	
ROE	14.3	14.6	-0.6	-22.5	8.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18년 예상 당기순이익 122억원의 주요 가정은, 1) 연평균가입자수 60만장, 2) 월평균 결제금 액 30만원이다. 코나아이의 이익체력은 가입자수가 늘어나면서 급증한다. 연평균가입자수를 100만명으로 가정하면 수수료수익이 360억원, 200만명으로 가정하면 수수료수익이 72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카드 충전 금액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충전 금액의 30%는 Deposit, 70%는 선수금으로 운용가능자산으로 분류)도 동반 확대되는 구조이다.

코나카드 가입자수에 따른 코나아이의 이익체력 시나리오						(단위: 만명, 만원, 억원)
수수료수익 시나리오						
연평균 가입자수	60	100	150	200	300	
평균 결제금액	30	30	30	30	30	
월간 사용금액	1,800	3,000	4,500	6,000	9,000	
연간 사용금액	21,600	36,000	54,000	72,000	108,000	
수수료수익	216	360	540	720	1,080	
운용수익 시나리오						
연평균 가입자수	60	100	150	200	300	
카드당 평균잔고	30	30	30	30	30	
연간 평균잔고	1,800	3,000	4,500	6,000	9,000	
운용수익률	2%	2%	2%	2%	2%	
운용수익	36	60	90	120	180	
합계	252	420	630	840	1,260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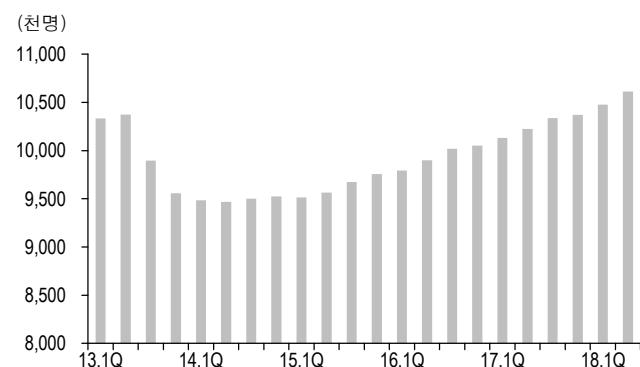
V. 사례분석: 삼성카드와 키움증권의 사례를 통해 본 코나아이

코나아이는 현재 개화시장(선불카드)을 선점하고 있는 시장의 선도 주자이다. 높은 성장성이 반영되는 초기 시장에서 코나아이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현재 상장되어 있는 신용카드 업체인 삼성카드와 개화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잠식했던 키움증권의 사례를 통해 코나아이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현재 회원수는 약 1,061만명이다. 2013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에 있던 회원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 반전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현재 시가총액은 4.2조원이다. 코나카드의 현재 가입자수는 18.2Q 기준 46만명이며 빠르게 늘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고객계좌수가 급증하면 당시 높은 PBR을 부여 받았다. 키움증권의 계좌수는 2017년 분기당 평균 12~17%씩 증가했으며, 당시 키움증권의 PBR은 3.6~6.1배까지 상승했다. 코나카드 또한 가입자수 급증에 따른 Valuation 레벨업이 기대된다.

삼성카드 가입자(유료회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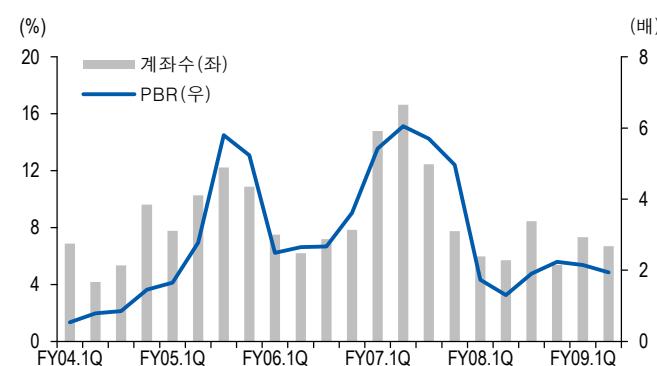
자료: 삼성카드,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카드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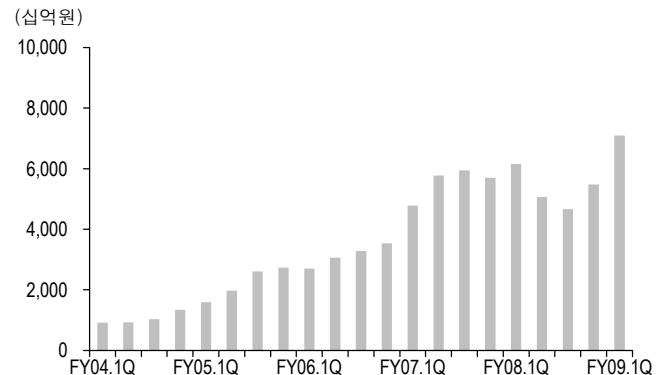
자료: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키움증권 계좌수 증가율(QoQ)과 PBR 추이



자료: 키움증권,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키움증권 고객예탁자산 추이



자료: 키움증권,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코나아이 (052400) 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 (월)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매출액	1,718	2,142	2,167	1,179	1,021
매출원가	1,150	1,486	1,435	889	787
매출총이익	568	656	732	290	234
판관비	310	358	371	348	332
영업이익	257	298	361	-58	-98
EBITDA	346	408	478	45	12
영업외순익	2	23	15	-3	-291
외환관련순익	6	-3	28	26	-69
이자순익	-14	-12	-13	-9	-6
관계기업관련순익	0	0	2	3	-10
기타	11	37	-2	-23	-2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9	320	376	-61	-389
법인세비용	46	60	84	-57	-9
계속사업순이익	214	260	292	-4	-380
증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14	260	292	-4	-380
지배지분순이익	213	257	288	-12	-369
포괄순이익	216	260	294	-5	-381
지배지분포괄이익	215	257	289	-13	-370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준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만 차감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 (월)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유동자산	1,610	2,070	2,116	1,713	1,350
현금및현금성자산	486	642	929	886	69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26	457	299	268	161
재고자산	712	759	768	480	378
비유동자산	944	995	782	821	618
유형자산	356	338	206	181	176
관계기업등 지분관련자산	7	7	14	39	29
기타투자자산	11	11	10	26	22
자산총계	2,554	3,065	2,898	2,534	1,968
유동부채	1,035	1,190	788	668	55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44	440	152	125	79
단기차입금	678	650	550	535	453
유동성장기부채	87	44	11	0	0
비유동부채	122	74	4	3	3
장기차입금	77	37	0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1,157	1,264	792	672	553
지배지분	1,379	1,781	2,019	1,767	1,380
자본금	53	78	78	78	78
자본잉여금	537	669	669	669	669
이익잉여금	831	1,067	1,317	1,255	886
비지배지분	18	21	87	95	35
자본총계	1,397	1,801	2,106	1,862	1,415
순차입금	316	-85	-449	-398	-327
총차입금	855	731	561	535	453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 (월)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영업활동 현금흐름	-161	396	233	313	168
당기순이익	214	260	292	-4	-380
감가상각비	58	63	55	32	28
외환순이익	3	-4	-19	-18	59
증속, 관계기업관련순이익	0	0	0	0	10
자산부채의 증감	-500	-12	-170	275	132
기타현금흐름	64	89	75	28	319
투자활동 현금흐름	8	-235	115	-104	-160
투자자산	90	-160	137	-30	5
유형자산 증가 (CAPEX)	-44	-30	-16	-18	-25
유형자산 감소	1	0	3	0	0
기타현금흐름	-40	-45	-10	-56	-140
재무활동 현금흐름	322	-6	-80	-266	-148
단기차입금	365	-99	-37	-15	-82
사채 및 장기차입금	-35	-49	-31	-11	0
자본금	11	143	40	0	0
현금배당	-19	-21	-39	-50	0
기타현금흐름	0	20	-14	-189	-66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19	13	-52
현금의 증감	168	156	287	-43	-192
기초 현금	318	486	642	929	886
기말 현금	486	642	929	886	694
NOPLAT	257	298	361	-58	-98
FCF	-243	309	212	357	122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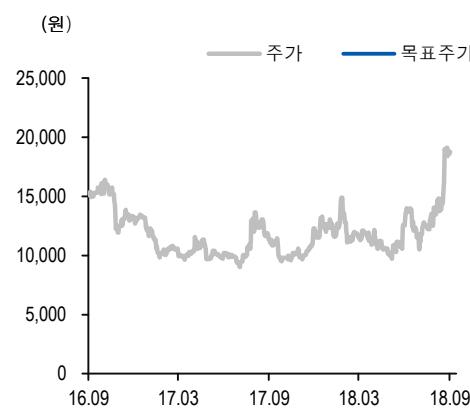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 (월)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EPS	1,547	1,725	1,854	-78	-2,369
BPS	10,131	11,536	13,081	12,325	9,723
EBITDAPS	3,263	2,735	3,071	292	79
SPS	12,497	14,358	13,929	7,578	6,565
DPS	154	250	325	0	0
PER	20.0	21.7	19.4	-234.5	-4.5
PBR	3.1	3.2	2.7	1.5	1.1
EV/EBITDA	10.4	10.3	10.8	56.1	112.4
PSR	2.5	2.6	2.6	2.4	1.6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 (월)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매출액 증가율 (%)	24.4	24.7	1.2	-45.6	-13.4
영업이익 증가율 (%)	2.2	15.7	21.3	적전	적지
지배순이익 증가율 (%)	14.9	21.0	12.1	적전	적지
매출총이익률 (%)	33.0	30.6	33.8	24.6	23.0
영업이익률 (%)	15.0	13.9	16.7	-5.0	-9.5
지배순이익률 (%)	12.4	12.0	13.3	-1.0	-36.1
EBITDA 마진 (%)	20.1	19.0	22.0	3.9	1.2
ROIC	16.1	15.2	17.5	-0.3	-8.2
ROA	9.4	9.2	9.7	-0.4	-16.4
ROE	17.4	16.3	15.2	-0.6	-23.4
부채비율 (%)	82.9	70.2	37.6	36.1	39.1
순차입금/자기자본 (%)	22.9	-4.8	-22.2	-22.5	-23.7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10.5	11.3	17.8	-4.4	-7.9

코나아이 (0524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시점 대비	괴리를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18-09-05	Not Rated	-	1년		
2018-08-21	Not Rated	-	1년		
2018-07-09	Not Rated	-	1년		-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를 $= (\text{실제주가} - \text{목표주가}) / \text{목표주가} \times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가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1.7
Buy(매수)	86.4
Hold(중립)	11.4
Sell(비중축소)	0.6
합계	100.0

주: 기준일 2018-09-02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박진형)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준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